

安邦俊의 義理思想과 精神史的 意義

-道學節義 不是兩岐'를 중심으로-

최영성*

|| 차례 ||

1. 머리말
 2. 學問歷程과 實踐儒學
 3. 義理思想과 精神史的 脈絡
 4. 『隱峯堊史別錄』의 意義와 影響
 5. 맺음말
- 참고문헌

【국문초록】

평생토록 '도학(道學)과 절의(節義)는 둘이 아니다'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학문에 임하였던 은봉(隱峯) 안방준(安邦俊 1573~1654)은 조선 후기 유학사상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전라도 보성(寶城) 출신으로, 조광조(趙光祖)·성혼(成渾)·이이(李珣)의 학통을 계승하여 김인후(金麟厚)·기대승(奇大升) 이후의 호남유학(湖南儒學)의 정맥(正脈)으로 평가를 받는다. 그는 도학과 절의가 하나임을 보여준 정몽주(鄭夢周)와 조헌(趙憲)을 진유(眞儒)로 몹시 경모(景慕)하였으며, 이들의 의리사상(義理思想)을 계승하여 몸소 실천에 옮겼다. 재야(在野)의 산림(山林) 학자의 처지에서도 국난(國難)이 일어나 국가와 백성이 위기에 부딪쳤을 때 분연히 거의(舉義)하여 선비의 기개를 떨치고 유학의 가르침을 선양(宣揚)하였다. 여기서 '도학·절의를 두 가지 일로 나눌 수 없다'고 한 그의 학문관이 지닌 생명력과 역동성을 짐작할 수 있다. 본고를 계기로 안방준 절의사상의 정신사적 맥락, 더 나아가 한국유학사에서 그가 차지하는 위상이 제대로 조명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도학(道學), 절의(의리), 실천유학, 위기지학(爲己之學), 진유(眞儒)

* 국립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관리학과 교수(한국철학)

1. 머리말

은봉(隱峯) 안방준(安邦俊)은 조선 후기 유학사상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이다. 그는 ‘도학절의(道學節義), 불시양기(不是兩岐)’라고 하는 학행관(學行觀)을 평생토록 실천했던 학자였다. 그러나, 현상윤(玄相允)의 『조선유학사』 같은 책에서도 ‘퇴율(退栗) 전후의 일반 명유(名儒)’ 가운데 한 분으로, 단 5행에 걸쳐 소개되는 데 그쳤다. 고(故) 안용백(安龍伯) 선생을 비롯한 후손들이 현조(顯祖)를 현창(顯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또 1973년 한국사상연구소에서 『은봉전서』를 영인 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연구가 활성화되지 않았다. 최근에 와서 학계에서 그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지만,¹⁾ 향후(向後) 안방준이 한국유학사에서 일정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기까지는 좀더 시일을 필요로 할 것 같다. 다만, 1996년에 『국역 은봉야사별록』²⁾이 나온 데 이어 2002년 『국역 은봉전서(1)』³⁾가 간행된 것을 계기로 그의 학문과 사상을 본격적으로 재조명해 보는 것도 뜻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은봉야사별록』에 특별히 주목하였는데, 이는 본서가 안방준의 학문 경향을 대변하는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일찍이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 1607~1689)은 안방준의 신도비문(4)을 찬(撰)한 바 있거니와,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한 바 있다.

1) 지금까지 발표된 안방준 연구논문은 다음과 같다.

이해준, 「우산 안방준의 생애와 사상」, 『금호문화』 1988년 7월호, 금호문화재단.

고영진, 「17세기 전반 호남사람의 학문과 사상-안방준·高傳川·鄭弘溍을 중심으로」,

『한국 사학사 연구』 조동걸 정년기념, 나남출판, 1997.

황의동, 「은봉 안방준의 학문연원과 학풍」, 『한국사상과 문화』 제21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3.

2) 이상익·최영성(역), 『은봉야사별록』, 서울 : 아세아문화사, 1996

김사원 등이 '도서출판 일출'(1996)에서 펴낸 같은 이름의 국역본도 있다.

3) 竹山安氏 牧牛會가 주관하고 安東敎가 번역하여 보성문화원에서 펴냈다.

우산(牛山 은봉)은 기개와 절조(節操)가 있는 분이다 남쪽 지방의 선비들이 이 어른에 힘입어 나아갈 방향을 잃지 않은 사람이 매우 많으니, 남중(南中)에 지극한 공이 있다.⁵⁾

이처럼 드높은 기풍과 굳센 절개로 남방에서 본보기가 되었던 안방준은 호남의 거유(鉅儒)로서, 정암(靜菴)·우계(牛溪)·울곡(栗谷)의 학통을 계승하여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고봉(高峯) 기대승(奇大升) 이후 호남유학의 정맥(正脈)을 형성한 주봉(主峯) 가운데 한 분이라는 점에서도 그에 대한 연구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절의란 도학의 울타리요 도학은 절의의 골자이다”⁶⁾고 한 옛 사람의 말이 있다. 도학과 절의는 내포(內包)와 외연(外延)의 관계라는 말이다. 안방준의 생평 학문은 사실상 이 말에 집약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조선 말기의 학자 매산(梅山) 홍직필(洪直弼 : 1776~1852)이 매양 배우는 사람들에게 『맹자』 ‘웅어장(熊魚章)’(「告子 상」)을 읽도록 권하면서 “도학이란 절의가 머무는 당실(堂室)이요, 절의란 도학의 울타리이다. 도학·절의를 두 가지 일로 가를 수 없다”⁷⁾고 한 것을 보면, 표어와 같은 위의 말이 지닌 생

- 4) 송시열 찬 ‘우산선생 신도비명’은 현재 전하는 『宋子大全』과 『宋書拾遺』에 누락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贋作(僞作) 시비가 있어 왔는데 1952년 『송서습유』를 중간하면서 비로소 “可徵無疑”라는 결론을 얻어 수록하기에 이르렀다. 민족문화추진회에서 1993년에 영인 간행한 문집총간 제116권 『송자대전』(IX)에는 실려 있지 않고, 보경문화사에서 1985년에 펴낸 영인본 『송자대전』 제7권, 560~565쪽에는 실려 있다. 민추본 문집총간 제81권 『은봉전서』(II)에도 이 글은 실려 있지 않다.
- 5) 『宋子大全』 부록 권14, 45b 「語錄」〈李喜朝錄〉“問牛山何如人? 先生曰 此人 有氣節. 南方士子賴此丈, 不失趨向者甚多, 於南中極有功矣.”(『은봉전서』, 「연보」 선생 74세조)
- 6) 吳熙常, 『老洲集』 권23, 1a 「雜識(一)」 “古人有云, 名節是道學之藩籬, 此言甚好. 任憲瓚, 『敬石集』 권4, 34b 「雜誌」 “節義者, 爲道學之藩籬, 而道學爲節義之骨子.”
- 7) 任憲晦, 『鼓山集』 권16, 21b 「梅山先生行狀」 “每勸學者讀熊魚章, 曰: 道學者, 節義之堂室, 節義者, 道學之藩籬. 道學節義, 不可判作兩事.”

명력과 추동력을 짐작하게 한다.

본고를 계기로 ‘도학과 절의는 둘이 아니다’고 한, 그의 학문관이 응축된 표어의 참된 의미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되새겨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금후로도 연구가 계속되어 안방준 절의사상의 정신사적 맥락, 더 나아가 한국유학사에서 그가 차지하는 위상이 제대로 조명되기를 기대한다.

2. 學問歷程과 實踐儒學

안방준(1573~1654. 선조 6년~효종 5년)의 자는 사언(士彦), 호는 은봉(隱峯) 또는 우산(牛山), 시호는 문강(文康)이다. 본관이 죽산(竹山)으로서 전라도 보성(寶城)에서 태어났다. 11세 때, 죽천(竹川) 박광전(朴光前 : 1526~1597)의 문하에 나아가 학업을 시작하였으며, 14세 때에는 자부(姊夫)인 난계(蘭溪) 박종정(朴宗挺 : ?~1597)에게도 나아가 배웠다. 박광전은 퇴계 이황의 문인으로, 영·호남의 학문 교류에 가교적(架橋的) 역할을 한 인물이다.

이후 과거 준비를 하다가 16세 때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위지학(爲己之學)을 하기로 마음을 굳혔으며, 19세가 되던 선조 24년(1591) 4월, 마침내 파주(坡州) 적성(積城)으로 우계(牛溪) 성혼(成渾)을 찾아가 그의 문인이 되었다. 이 때 성혼은 ‘구방심(求放心)’ 세 글자를 손수 써서 주면서 항상 마음에 새기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위학지방(爲學之方)』(朱門旨訣) 한 책을 주며 학문의 길을 제시하였다. 이후에도 서한을 보내 면재(勉齋) 황간(黃幹)의 이른바 “마음의 바탕을 진실하게 하고 공부에 각고하라”(眞實心地, 刻苦工夫)와 ‘극기교치(克己矯治)’(矯氣質)를 강조함으로써, 실천 유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별히 준도(潛導)하였다.⁸⁾ 또 말년에는 심의(深衣)와 『심경(心經)』 일부(一部)를 내려 주면서 ‘남방에서 도를 구현하

라는 부촉(附囑)을 하기도 했다.⁹⁾

20세 되던 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스승인 박광전·박종정과 함께 분연히 거의(擧義)하여 수년 동안 왜적과 싸웠다. 광해군 때에는 권신 이이첨(李爾瞻)이 그의 명성을 듣고 몇 차례 만나기를 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광해군 6년(1614) 마침내 보성의 우산(牛山)으로 돌아가 복거(卜居)하면서 학문에 힘썼다. 인조반정 뒤에는 반정의 원훈(元勳) 김유(金瑬)에게 글을 보내, 당파를 버리고 인재를 고루 등용하며 공사(公私)의 구별을 분명히 하도록 건의하였다. 이후 명성이 조야(朝野)에 알려져 동몽교관(童蒙敎官)·사포서 별제(司圃署別提)·도찰방(道察訪) 등에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고, 정묘·병자년의 호란 때에는 의병을 일으켜 근왕(勤王)에 힘썼으며 화의(和議)를 통렬히 배척하였다. 효종 즉위 이후 사헌부 지평(持平)에 임명되자 비로소 나아가 곧 장령(掌令)을 지내고, 이어 특지(特旨)로 통정(通政)의 위계(位階)에 올랐으며 공조참의에 임명되었다.

세상을 떠난 뒤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보성의 대계서원(大溪書院), 능주(綾州)의 도산사우(道山祠宇) 등에 배향되었다. 숙종 17년(1691)에는 일찍이 『기축기사(己丑記事)』를 찬술하여 기축옥사(己丑獄事 : 1589)의 전말(顛末)을 매우 상세히 적었다는 이유로 남인들의 미움을 사서 벼슬이 추삭(追削)되고 사당마저 헐렸다가 뒤에 다시 복구되기도 하였다.

저술로는 40권 20책에 달하는 『은봉전서』가 있다. 이 가운데 문집은 권1부터 권4까지 4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찬록(纂錄)이다. 이에 대해

8) 『牛溪集』 권5, 52b~53a 「答安士彥書」, 『牛溪續集』 권4, 34b~36a 「與安士彥書」 참조.

9) 『은봉전서』 부록 권3, 20b 「神道碑銘」, “終承道南之託 深衣心經之傳”(『송자대전』 拾遺 권8, 「牛山安先生神道碑銘」)
『道南之託』은 중국 북송 때의 도학자 程明道가 제자 楊時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우리 도가 남방으로 간다'(吾道南矣)고 하였던 고사에서 나왔다

송시열은 “무릇 소저(所著)와 찬록(纂錄)이 충효(忠孝)를 말하고, 윤기(倫紀)를 밝히며, 사우(師友)를 높이고, 사정(邪正)을 분별하며, 도학을 숭상하고, 원왕(冤枉)을 밝히며 절의를 장려하는 등의 글 아님이 없다. 그 뜻은 대개 절의가 학문 가운데의 것이라는 점을 밝히는 것으로, 사실을 고증하고 말을 살피는 데 그친 것은 아니다”¹⁰⁾고 하였다. 모아 기록하거나 엮은 것으로는 기묘사화의 전말을 엮은 『기묘유적(己卯遺蹟)』, 선조 8년(1575)의 동서분당으로부터 효종 1년(1650)까지의 조야(朝野)에 산재한 동·서 양론의 ‘알시알비(曰是曰非)’하는 자료들을 한 데 모아 엮은 『혼정편록(混定編錄)』,¹¹⁾ 중봉(重峯) 조헌(趙憲)의 유문(遺文)과 사적을 엮은 『항의신편(抗義新編)』, 임진왜란 당시 관민(官民)의 충용(忠勇)어린 활약상을 기록한 『은봉아사별록(隱峯叅史別錄)』이 있고, 그밖에도 『삼원기사(三冤記事)』, 『호남의록(湖南義錄)』, 『사우감계(師友鑑戒)』 등 다수가 있다. 그는 언론(言論)이 강개(慷慨)하고 사필(史筆)이 정직(正直)하여 세상의 추종을 받았는데 『혼정편록』, 『항의신편』과 같은 책은 뒷날 『실록』을 편찬하는 데 십중칠팔이 취택(取擇)될 정도였다고 한다.

안방준이 살았던 당시는 이기설(理氣說)과 예론이 무성했고 그 역시 이에 밝았다고 한다. 송시열은 그의 학문과 저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높이 평가하였다.

근대 유선(儒先)이 논한 이기선후(理氣先後), 사단칠정 등의 설에 있어서는 동이(同異)와 득실(得失)을 한결같이 모두 율곡의 설로 절충하였는데, 분석(辨析)이 정밀하여 미묘함을 파헤치고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데 공력이 많았다.¹²⁾

10) 『은봉전서』 부록 권3, 21a~21b 「신도비명」, “凡所著纂錄, 無非所以言忠孝, 明倫綱, 隆師友, 辨邪正, 崇道學, 明冤枉, 獎節義等書也. 其義蓋明節義之爲學問中事也”

11) ‘混定’이란 “是非는 한 때 섞일 수 있지만 公論은 절로 백세에 정해진다”는 의미이다.

12) 『은봉전서』 부록 권3, 20b 「신도비명」, “至於近代儒先所論理氣先後, 四端七情等

『이기논변』, 『예설고증』, 『대학연의(大學演義)』 등의 책은 모두 정심(精深)하고 순수하여 뒤집거나 깨뜨려도 깨지지 않을 것이니, 요컨대 후세의 주석가들이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세상에 전하지 않으니 애석한 노릇이다.¹³⁾

이기론·예론·경학 등에 관계된 문자를 지금의 『은봉전서』에서는 찾을 수 없다. 물론 일실(逸失)된 탓이기도 하겠지만, 『은봉전서』를 통해 느낄 수 있는 점은, 그가 비록 이학과 예학에 밝았다 하더라도, 이론으로 흘러버린 이기설이나 예론을 학문의 윗자리에 두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천은 뒷전에 둔 채 고담대언(高談大言)만 일삼는 것을 힘써 배척했다는 점이다. 다음의 두 대목을 새겨 보기로 한다.

세상에 이른바 학문이란 과연 무엇인가. 일언일행(一言一行)을 예법에 맞게 하고, 충효대절(忠孝大節)이 옛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자는 학행지사(學行之士)가 되지 못하고, 기송(記誦)에 종사하여 그저 입과 귀만을 돕고, 고상하게 성명(性命)을 말하며, 말은 교묘하고 행동은 어긋나는 것을 이에 학문이라 할 수 있겠는가.¹⁴⁾

독서하고 강학하는 것은 이전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많이 알아서 그 덕을 쌓는 것에 불과하다. 선비된 자가 학문을 하고자 한다면 『소학』 한 책이면 족하고, 치평(治平)의 대업을 구하고자 한다면 『대학』 한 책이면 족하다. 오늘의 학자는 종신토록 강학하며 만 권의 책을 독파하지만, 하루도 몸소 실행하지 않고 한 글자도 가슴에 새기지 않으니, 이는 아침이 다가도록 밥 먹는 얘기만 하고 하나도 배부름을 얻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글을 읽은들 무슨 보탬이 있겠는가.¹⁵⁾

說、同異得失、一皆粟谷之說折衷之、而辨析精悉、多有發微闡幽之工

13) 『은봉전서』 부록 권3 32b~33a 「신도비명」, “(……) 理氣論辨、禮說考證、大學演義等書、皆精深粹白、顛撲不破、要非後世注家之所及也、而不傳惜哉!”

14) 『은봉전서』 권6. 13b 「壬辰記事」, “且世所謂學問者、果何事耶? 一言一行、動遵禮法、忠孝大節、無愧于古人者、不得爲學問之士、而從事記誦、只資口耳、高談性命、靜言庸違者、乃可謂學問乎?”

이러한 주장은 안방준이 추구했던 학문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시사한다고 하겠다. 과연 이론 전개나 토론보다는 의리적 실천과 경세제민(經世濟民)이 그의 관심사요 평생 학문의 요체였음을 알게 한다.¹⁶⁾

안방준의 평생 사업은 대개 기절(氣節)에서 나온 것이 많다.¹⁷⁾ 그가 학문을 함에 있어 우계 성혼과 율곡 이이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지만, 왜적과의 강화(講和)라든지 청나라와의 화의(和議) 문제에 있어서는 입장을 달리하였던 듯하다. 일찍이 이어는

도에 있어 병행할 수 없는 것이 시(是)와 비(非)이고, 일에 있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리(利)와 해(害)이다. 그저 이해만 따지는 데 급급하고 시비의 소재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일을 처리할 때의 떳떳하고 정당한 도리에서 어긋나게 될 것이요, 그저 옳고 그름만 따지고 이해의 소재를 궁구하지 않는다면 응변(應變)의 권도(權道)에서 어긋나게 된다.¹⁸⁾

고 하였고, 또 성혼은 “조정에 있어서는 혹 시비와 이해가 합해서 한 자리가 되는 수가 있으니, 조정의 이해가 있는 곳이 곧 시비가 있는 곳이다”¹⁹⁾고 한 바 있다. 원론적인 말이기는 하지만, 강화론 또는 주화론(主和論)과 관련하여 되새겨 볼 정견(正見)이 아닐까 한다. 이에 대해 사계(沙溪) 김장

15) 『은봉전서』 부록 권3, 2a~2b 「遺事」〈徐鳳翎錄〉“先生嘗以爲讀書講學，此不過多識前言往行，以蓄其德矣。爲士者欲爲學問，則小學一書足矣，欲求治平之大業，則大學一書足矣。今之學者，終身講學，讀破萬卷，而無一日之躬行，無一字之服膺，是猶終朝說食，不得一飽者也。然則讀書有何所益?”

16) 황의동, 「은봉 안방준의 학문연원과 학풍」, 『한국사상과 문화』 제21집, 2003, 439쪽.

17) 『은봉전서』 권38, 2a 「李基敬跋」, “平居事爲，大抵於氣節爲多”

18) 『율곡전서』 拾遺 권5, 26a 「時弊七條策」, “竊謂道之不可並者，是與非也。事之不可俱者，利與害也。徒以利害爲急，而不顧是非之所在，則乖於制事之義，徒以是非爲意，而不究利害之所在，則乖於應變之權”

19) 『우계집』 권5, 30a 「答申子方論奏本事別紙」, “然在朝廷，則或有是非利害合而爲一處，朝廷利害之所在，即是非之所在也”

생(金長生 : 1548~1631)은

변(變)도 쉽게 조처할 수 없고 권(權)도 경솔히 논할 수 없다. 우계가 임진년 능변(陵變)을 당한 뒤에 국외(局外)의 한 사람으로서 갑자기 화의를 주장했다가 선조대왕에게 무한한 죄책을 받았는데, 만약 울곡 같았다면 반드시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²⁰⁾

고 하였지만,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상황에 알맞고 도리에 합치됨을 얻는다면 의(義)와 리(利)가 그 가운데 있다고 한 이이의 경우라든지, 공리(公利)와 공익(公益)은 '의요 리가 아님을 주장한 성혼의 경우를 통해 울·우(栗牛) 양현이 서로 입장을 같이 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된다. 그러나, 절의를 중시하는 안방준의 경우는 왜적과의 강화라든지 청나라와의 화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한다. 이 점에 있어서는 김상헌(金尙憲) 등 척화파와 인식을 같이 한다. 그러다 보니 후세의 학자들 중에는 안방준의 학문 경향과 처세 등에 있어 '상기(尙氣)' 즉 기개와 절조(氣操)만을 숭상하는 병폐가 있다고 지적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²¹⁾ 그러나 이는 안방준을 잘못 본 것이라 하겠다. 그에 대한 평들을 보면, 절의가 도학을 가리운 감이 적지 않다. 그러기에 송시열이 "세상에서 절의만을 가지고 선생을 평가하는 자는 선생을 깊이 알지 못한 것이다"(「신도비명」)고 하였던 것이다.

20) 『송자대전』 권53, 53b 「與金起之」 "先師嘗與門人 講衛甌經權事, 而曰 「變不可易處, 權不可輕議, 牛溪當壬辰陵變後 以局外之人, 遽主和議, 以受宣祖大王無限罪責 若是栗谷, 則必無此事矣"

21) 『효종실록』 4년 3월 14일 庚辰條 "安邦俊, 湖南人 (……) 但其學術不醇 有尙氣之病"

3. 義理思想과 精神史的 脈絡

안방준의 학문과 사상 형성에는 스승인 성혼의 영향이 지대하였던 것 같다.²²⁾ 특히 ‘은거자수(隱居自守)’하는 학풍은 청송(聽松) 성수침(成守琛)으로부터 우계 성혼으로 이어지는 고풍(高風)을 계승한 것이다. 어느 한 사인(士人)이 안방준의 풍도(風度)를 듣고 남긴 시 가운데 ‘우계(牛溪)의 제월(霽月)이 우산(牛山)에 비치네’²³⁾라고 한 구절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위기지학과 의리정신으로 집약되는 안방준의 실천유학은 또 다른 스승 박광전의 영향이 적지 않았던 듯하다.²⁴⁾ 그가 찬한 「죽천선생 행장」에서는 박광전을 다음과 같이 기리고 있다.

아아! 우리 호남은 본래 문헌(文獻)의 고장으로 불렸다. 고려말부터 본조(本朝)에 이르기까지 학문으로 세상에 이름을 올린 자는 오직 김하서(金河西)·기고봉(奇高峯)·이일재(李一齋 : 恒)·유미암(柳眉巖 : 希春), 그리고 우리 선생뿐이다. 하서의 학문과 조행(操行), 절의와 문장은 높아서 따를 수 없고, 고봉의 명쾌한 의논이나 일재의 강하고 굳세어 굽히지 않음이나 미암의 넓은 지식과 많은 문견(聞見) 또한 세상에서 보기 드문 일이지만, 그 실천의 독실함을 논하자면, 저 세 분 현인이 우리 선생과 더불어 그 누가 더 나은지 가릴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아는 사람에게나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속인들과는 말하기 어렵다.²⁵⁾

22) 성혼과 안방준은 姻戚 관계이기도 하다. 성혼의 아들 成文濬의 사위가 바로 안방준의 장남 厚之이다

23) 『은봉전서』 부록 권1, 5b <연보, 선생 19세조> “有一京師士子, 來過湖西, 聞先生之風, 作詩詠歎, 有牛溪霽月照牛山之句”

24) 박광전에 대한 종합적 연구는 『퇴계학과 한국문화』 제32호,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03 참조.

25) 『은봉전서』 권4, 13b 「竹川朴先生行狀」

안방준의 학문 특징은 고풍(高風)과 의절(毅節)과 사업(事業)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이는 다시 말해서 위기지학(爲己之學)·의리지학(義理之學)·경세지학(經世之學)이라 말할 수 있다. 안방준은 성품이 고결하고 기절(氣節)이 있었으며, 출처대절(出處大節)이 무척 엄격하였다. 일찍이 자호를 '빙호자(氷壺子)'라 하였는데, 그의 기상과 성품은 이 한 마디에 집약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시골에 물러나 살면서 세상일에 뜻이 없었던 것 같지만, 여러 차례 항소(抗疏)함에 기휘(忌諱)를 피함이 없었다.

안방준은 왜란과 호란이 중첩되던 시기에 '절의' 두 글자를 신조로 삼고 살다가 일생을 마쳤다. 그는 국가의 존망과 절의를 직결시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가에 있어서 절의는 사람에게 있어서 원기(元氣)와 같다 사람에게 원기가 있으면 비록 심한 병이 들었다 하더라도 죽음에 이르지는 않듯이, 나라에 절의가 있으면 비록 큰 변이 있더라도 망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라의 존망은 오직 절의의 부식(扶植) 여하에 달려 있을 따름이다.²⁶⁾

대저 절의는 국가의 원기이다 사람은 원기가 없으면 죽고 나라는 원기가 없으면 망한다. 그러므로 옛날에 창업(創業)했거나 중흥을 이룩한 군주가 모두 절의를 기리고 높이는 것으로써 급선무를 삼았음은 진실로 이 때문이다.²⁷⁾

절의를 숭상하는 그의 학문 태도는 이미 15세 때 「이대원전(李大源傳)」을 지은 데서도 잘 드러난다. 선조 20년(1587), 왜적이 남해안의 녹도(鹿

26) 『은봉전서』 권3, 5b 「與延平李相公別紙」, “節義之於國家, 猶元氣之於人也 人有元氣, 則雖甚病 不至於死, 國有節義, 則雖大亂, 不至於亡 故國之存亡, 惟在於節義之扶植如何耳”

27) 『은봉전서』 권2, 28a 「言事疏」, “夫節義國家元氣, 人無元氣則死, 國無節義則亡 是以古之創業中興之君, 莫不以褒崇節義爲急先之務者, 良以此也”

島)에 들어와 노략질하자 당시 만호(萬戶)이던 이대원(1566~1587)이 힘껏 싸우다 죽었는데, 이를 들은 안방준이 전(傳)을 지어 그의 절의를 기렸다는 것이다.²⁸⁾

‘도학과 절의는 둘이 아니다’고 한 그의 말에는 당세의 험란한 시대상이 반영되어 있다. 또 당시 유자(儒者)들이 도학과 절의를 들로 보아 도학지사(道學之士)와 절의지인(節義之人)을 구분하는 데 대한 비판의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다. 도학만을 숭상하면서 절의를 소홀히 하거나 외면하는 세태(世態)에 경종(警鐘)을 울리고 상대적으로 절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당나라 태종 때의 현상(賢相) 위징(魏徵 : 580~643)이 이른바 “절의가 서지 않으면 명교(名教)가 흥기(興起)하지 않는다”²⁹⁾고 한 말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다.

학행(學行)에 대한 안방준의 기본적인 생각은 학문에다 절의가 갖추어진 사람이라야 진유(眞儒)라고 한 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옛 사람은 절의를 학문 가운데 두었으나, 오늘날 사람은 절의를 학문 밖의 것으로 한다. (……) 우리 동방의 학문은 정포은(鄭圃隱)·권양촌(權陽村)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학문으로 말하자면 양촌이 훨씬 뛰어나지만, 절의로 말하자면 양촌은 불만한 것이 없다. 우리 조정에 이르러서도 그 폐단이 아직 남아 있어 학문과 절의를 나누어 들로 여긴다. 명현(名賢)이 비록 많더라도 진유(眞儒)는 적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이를 분변하지 못한다.³⁰⁾

송시열은 「우산선생 신도비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28) 『은봉전서』 부록 권1, 3b <연보, 선생 15세조>

29) 魏徵, 「論治道疏」, “心懷苟且, 則節義不立, 節義不立, 則名教不興”

30) 『은봉전서』 권10, 20a 「牛山問答」, “古之人, 節義在學問中, 今之人, 節義在學問外. 愚請粗陳厥由, 試詳聽之. 吾東方學問, 自鄭圃隱·權陽村始, 論其學問, 則陽村過於圃隱遠矣. 論其節義, 則陽村無足可觀. 至于我朝, 其弊猶存, 學問節義, 分而爲二, 名賢雖多, 而眞儒則少, 舉世之人, 莫之能辨”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절의는 학문 가운데 일사(一事)이다. (……) 후세에 의리가 밝지 못하여 마침내 도학과 절의를 나누어 둘로 하였으나, 나는 절의를 버리고 도학을 제대로 하는 이를 보지 못했다”고 하였다.³¹⁾

위의 이 말은 안방준의 평생 지론 내지 학문 향방이 무엇인지를 지시(指示)하는 것으로서, 그의 학문과 사상을 헤아리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겠다.

안방준은 평생토록 포은 정몽주(1337~1392)와 중봉 조헌(1544~1592)의 학문·절의를 사모하였다. 항상 이르기를 “중봉의 학문과 절의는 정포은과 함께 부합되니 모두 명세진유(名世眞儒)라 하겠다” 했다 한다. 두 선유(先儒)의 호에서 각각 한 자씩을 취하여 ‘은봉(隱峯)’이라 자호(自號)하고 이를 편액(扁額)으로 걸었다는 것만 보아도 그 경모(景慕)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겠다

안방준은 명현과 진유를 구분하면서, 우리 나라에서 진정한 유자는 정암 조광조, 율곡 이이, 중봉 조헌 세 사람을 꼽을 수 있다고 하였다.

우선 명현은 제외하고 진유를 말하자면, 포은 이후에 오직 정암·율곡·중봉만이 젊어서부터 국가를 경영할 큰 뜻을 품었다. 과거에 급제하여 조정에 나아가자, 시세(時勢)를 헤아리지 않고 이해(利害)를 따지지 않으면서 오직 당우삼대(唐虞三代)의 지치(至治)를 이루기를 자신의 임무로 삼았다. 이 세 현인이 비록 도를 실행하지는 못했지만 그 도를 행한 것과 다름이 없다.³²⁾

이와 같은 진유관(眞儒觀)은 율곡 이이의 그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바

31) 『은봉전서』 부록 권3 21a~21b 「신도비명」 “節義是學問中一事。(……) 後世義理不明。遂分道學與節義爲二。吾未見舍節義而爲道學也”

32) 『은봉전서』 권10. 21a 「牛山答問」 “姑舍名賢。請言眞儒。 團隱後惟靜庵栗谷重峯。自少有經濟大志。及登第立朝。不量時勢。不計利害。惟以政治三代爲己任。則此三賢雖不得行道。其與行道者無異矣”

적지 않은 듯하다. 이이는 진유야말로 도학지사라고 하면서 ‘진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 바 있다.

이른바 진유란 나아가서는 한 시대에 도를 행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태평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고, 물러가서는 만세에 가르침을 내려 주어, 배우는 이로 하여금 큰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이니, 나아가서 도를 행하지 않고, 물러 나와서 도 가르침을 드리우지 못한다면, 비록 진유라 하더라도 나는 믿지 않는다.³³⁾

도학을 행도(行道)와 수교(垂教 : 垂世立教)의 차원에서 볼 때, 조광조가 ‘행도’적이라면 이황은 ‘수교’적이고 이이는 행도와 수교를 겸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삼현(三賢)의 기질과 학문관에 차이도 있으며, 그 시대의 여건이나 배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이이는 왕좌지재(王佐之才)를 갖춘 학자로서, 도학에 밝았을 뿐만 아니라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역량까지 겸하여 후일 실학사상을 선도하여, 성호 이익으로부터 “국조(國朝) 이래 시무(時務)를 아는 분으로는 이율곡과 반계 유형원 두 분이 있을 뿐이다”는 찬사를 받기도 하였다.

안방준은 증봉 조헌의 자품(資稟)과 풍의(風誼)를 유달리 사모하고 도학과 절의를 추중(推重)하여 천고의 진유(眞儒)라 하였다. 약관 시절부터 조헌을 태산북두(泰山北斗)처럼 흠앙(欽仰)하여, 평생토록 조헌의 사적(事跡)을 밝혀 후세에 전해지도록 하는 데 헌신적으로 노력하였다(「重峯東還封事跋」). 청음 김상헌은 「증봉선생 신도비명」에서 “국가에서 인재를 양육한 지 2백년, 선조조에 이르러 충효·절의·학문을 겸비한 선비 한 사람이 있었으니, 증봉 조헌 선생이 바로 그 분이다”³⁴⁾고 평가하였으며, 송시

33) 『율곡전서』 권15, 9a~9b 「東湖問答」 “夫所謂眞儒者，進則行道於一時，使斯民有熙皞之樂，退則垂教於萬世，使學者得大寐之醒。進而無道可行，退而無教可垂，則雖謂之眞儒，吾不信也”

34) 『증봉집』 부록 권3, 19a 「증봉선생 신도비명」 “國家養育人才二百年，至宣祖朝，有

열은 충청도 옥천(沃川)에서 성장하여 어릴 때부터 조헌의 풍도(風度)와 기절(氣節)을 익히 들었던 터라, 평소 그를 존경하고 숭앙하기를 율곡 이이 다음으로 하였다고 한다.³⁵⁾ 이들이 한결같이 조헌을 높이 평가한 이유는 그가 도학과 절의를 한 몸에 겸비한 진유(眞儒)라는 것이다. 여기서 이들의 사상적 사자(師資) 관계를 짐작해 볼 수도 있음직하다.

조헌을 특별히 추증하는 안방준은 조헌에 대하여

정암(靜庵)의 자품(資稟)은 율곡보다 훨씬 뛰어나지만 조예(造詣)의 깊이는 율곡이 낮다. 중봉의 자품과 조예는 비록 정암과 율곡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지만, 건식이 높고 밝은 것이나 설시(設施)했던 말과 계획은 정암과 율곡 모두가 중봉의 섬실(纖悉)하게 갖춘 것만 못하다. (……) 중봉 같은 이는 실로 기자(箕子)가 조선에 봉해진 이후 수천 년 동안 없었던 진유(眞儒)이다.³⁶⁾

고 하였으며, 또 “후세에 선생을 알려고 하는 이들이 『항의신편』에서 그 정충장절(精忠壯節)을 보고, 『동환봉사』에서 그의 경국제민(經國濟民)의 큰 뜻을 살필 것 같으면 비록 전집을 두루 다 보지 않더라도 선생의 대개(大概)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³⁷⁾고 하였다. 안방준이 절의와 함께 경세를 중시하였던 것은 그가 모든 경전에 대해 자세히 연구하면서도 특히 『대학』에 힘을 쏟았던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³⁸⁾

忠孝節義學問兼備之士一人，爲重峯先生諱憲是也”

35) 송시열이撰한 비문·행장 등의 문자에서 이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송자대전』 부록 권19, 1b~2a 「記述雜錄」〈權尙夏錄〉

36) 『은봉전서』 권10, 21b 「牛山問答」 “靜庵之資稟，絕勝於栗谷，而造詣之深，栗谷爲優，重峰之資稟造詣，雖似未及於靜栗，而見識之高明，設施之言計，靜栗皆不如重峰之纖悉備具，愚所撰東還封事·抗義新編，君宜仔細去看，若重峰，實箕封以來，數千載間，所未有之眞儒也”

37) 『은봉집』 권4, 48b 「東還封事跋」

38) 『은봉전서』 부록 권3, 29a 「신도비명」(宋秉璿撰) “凡於經傳，無不究極，尤用力於曾傳”

조헌과 안방준은 각각 우계 성혼에게 집지(執贄)했던 문인(門人)들이다. 이들은 동문(同門), 동도지의(同道之義)는 있지만 일찍이 서로 상면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단지 풍의(風誼)로써 신교(神交)를 나누었으며 각별한 영향을 주고받았을 따름이었다. 안방준은 조헌의 「청절왜사소(請絕倭使疏)」, 「거의격서(舉義檄書)」 등 정충고절(精忠高節)에 관계된 글과 후학들이 짓거나 기술한 비문·유사(遺事)·제문 등을 모으고, 생애를 여덟 가지로 나누어 그림으로 그려 붙여 『항의신편(抗義新編)』을 엮는 등 조헌의 의리를 환전(喧傳)하기에 힘썼다. 또 조헌의 후손들이 가세(家勢)가 빈한(貧寒)하여 김포의 구기(舊基)를 남에게 팔아 넘기자, 이를 다시 사들여 후일 그 땅에 사우(祠宇 : 牛渚書院의 前身)를 창건하고 사적비를 세울 수 있도록 이바지하였다.³⁹⁾ 이뿐만 아니라, 조헌에 대해 ‘과격부중지인(過激不中之人)’이라는 비방이 일어났을 때,⁴⁰⁾ 그는 조헌의 존양지의(尊攘之義)와 척사지도(斥邪之道)가 실로 춘추대의(春秋大義)에 부합되며, 또 언사(言辭)는 비록 과격한 면이 없지 않지만, 이는 실로 지성측달(至誠惻怛)한 마음에서 나왔으며, 선견지명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힘써 변호하였다. 조헌이 사절(死節)한 뒤에도 그를 ‘조명지인(釣名之人)’이라는 등 헐뜯는 이들이 많자, 각박해진 사풍(士風)을 크게 개탄하면서, 이를 변명하기에 여력을 남기지 않았다.

39) 『은봉전서』 부록 권1, 〈연보, 선생 41세조〉

40) 조헌은 이이·성혼을 독실하게 믿은 나머지 두 선생을 배척하는 자는 모두 소인으로 생각하였고, 존경하는 자는 모두 군자로 여겼다. 또한 언론이 과격한 까닭에 때로는 그를 적대시하거나 원망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스승인 이이까지도 “汝式(조헌)은 비록 經國濟世의 큰 뜻은 있으나 재주가 그에 미치지 못한다. 너무 고집만 하여 時勢를 헤아리지 않고 문득 君父에게 三代의 治를 기대하는데, 뜻과 같지 않으면 반드시 強諫하는 병통이 있을 것이다”(『을곡전서』 권38, 13b 「諸家記述雜錄」)고 한 바 있다.

세상에서 지껄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선생(趙憲)께서 사절(死節)한 것은 명예를 닦으려는 것이라고 하기에 이르렀다. 뒤에는 말을 바꾸어 “조모는 하나의 충신에 지나지 않는다. 그의 학문은 공소(空疎)하여 취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하기도 했다. 아아! 우주가 생긴 이래로 명예를 닦으려고 죽은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본 적이 있는가 대저 이른바 이름을 닦는다는 것은 소리(小利)를 버리고 대리(大利)를 취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선생의 죽음에 부자(父子)의 고향(膏血)이 초야를 물들였으며, 세 고아가 외롭게 얼고 주린 채로 이곳 저곳을 떠돌았으니, 인간의 화혹(禍酷)이 처참하다고 하겠다.

선생의 죽음에 어떠한 이로움이 있었기에 이름을 닦았다고 말하는가. 성인은 죽어서도 이름이 일컬어지지 않는 것을 싫어한다고 했다. 설령 선생께서 참으로 이름을 위하여 죽었다 하더라도 삼대(三代) 이후로는 오히려 이름을 좋아하지 않음이 걱정스러운 것이다.⁴¹⁾ 하물며 선생께서는 삼대 이상(三代以上)의 인물로서, 물고기와 곰발바닥을 취하고 버리는 판단(捨生取義)으로, 단지 ‘내 마음의 편안함’을 구함으로써 ‘나의 하늘’을 온전히 하였을 뿐이다. 처음부터 이름을 위하는 것이 아니었다.⁴²⁾

위와 같은 전후 사정으로 보건대, 조헌이 안방준을 만난 것은 양웅(揚雄)이 후파(侯芭)⁴³⁾를 만난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이른바 “후세의 자운(子雲 : 양웅)과 요부(堯夫 : 邵雍)를 기다릴 필요는 없다”⁴⁴⁾고 한 비유가 적절한 듯하다.

이처럼 절의를 고취시키고 조헌과 같이 우뚝한 도학지인(道學之人)의

41) 『莊子』 「秋水」편의 ‘龜與其死爲藏之於廟堂之上. 寧生而曳尾於塗中’이라고 한 한一節이 연상된다.

42) 『은봉전서』 권6. 13a~13b 「壬辰記事」 참조

43) 양웅의 문인으로 『太玄經』과 『法言』을 傳受하였다

44) 『은봉전서』 부록 권3. 30a 「신도비명」(宋秉璿撰) “嗚呼. 子雲堯夫. 不必俟於後世也”

전한 때의 揚雄이 『태현경』을 지은 뒤 “후세의 揚子雲이 나면 반드시 이 책을 좋아할 것이다”고 하였고, 북송 때 소옹은 『皇極經世書』를 짓고 나서 “堯夫가 후세의 요부에 게 이 책을 드린다”고 하였다 한다. 자기의 저서를 자부한 나머지, 당세는 몰라주어도 후세에 자기와 같은 사람이 나면 반드시 알아줄 것이라는 말이다.

학문·절의를 표장(表彰)하려는 안방준의 남다른 노력은 마침내 결실을 맺었으니, 뒤를 이어 우암 송시열 같은 거유(鉅儒)가 일어나 '춘추대의'를 국시(國是)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정론화(定論化)함으로써, 조선 후기 정책 기조(基調) 및 학술사상의 근간이 되도록 하였다. 송시열에게 끼친 안방준의 영향은 실로 지대한 것이었다. 또 후일 조헌이 순국(殉國)한 지 291년 만인 고종 20년(1883)에는 조헌에게 '문묘종사(文廟從祀)'의 영전(榮典)이 내려져, 마침내 친추에 영명(令名)을 드리우고 대대로 전국민의 추앙을 받기에 이르렀다. 한국정신사에 있어서 안방준의 공헌은 참으로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특히 조헌과 안방준의 관계는 「신도비명」 등에서 이른바 '세상에 다시 없는 감응'(曠世相感) 바로 그것이라 하겠다.

4. 『隱峯埜史別錄』의 意義와 影響

안방준은 평생토록 충신·열사 및 순의지인(殉義之人)에 대한 표장(表彰)과 그들의 전기를 엮어 후세에 알리는 일에 힘썼다. 이에 대한 많은 찬록(纂錄)·저술 중에서 특별히 심혈을 기울인 것이 바로 『은봉야사별록』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임진왜란의 전말과 조선의 군(軍)·관(官)·민(民)이 왜적을 맞아 분전(奮戰)하였던 사실, 특히 용감하게 싸우다 죽은 장졸(將卒)들의 정충대용(精忠大勇)을 실감 있게 서술하였다.

내용을 보면, 왜란의 진행과정을 개괄적으로 다루고 특히 조헌과 칠백의사(七百義士)의 순의(殉義)를 서술한 「임진기사(壬辰記事)」, 삼도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 이순신(李舜臣)이 용전(勇戰)하다가 전사한 경위를 서술한 「노량기사(露梁記事)」, 선조 26년(1593, 癸巳) 제2차 진주성(晉州城)의 혈전(血戰)을 서술한 「진주서사(晉州敍事)」의 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의 『징비록(懲毖錄)』과 함께 임진

왜란을 연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충의정신(忠義精神)의 앙양(昂揚)에도 도움되는 바 크다. 「임진기사」 앞머리에 보이는 율곡 이이의 십만양병설(十萬養兵說) 기사 같은 것은 김장생이 찬(撰)한 「율곡행장」이나, 이를 토대로 한 『선조수정실록』(15년 9월 조)의 기록보다 더 자세하고 분명하여, 이에 대한 보완의 구실을 하기에 충분하다.⁴⁵⁾ 책이름을 ‘야사별록(野史別錄)’이라 하여, 정사(正史)의 대열에 끼지 못하는 일개 ‘야사(野史)’에 불과한 것으로 표현하였으나 이는 겸손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⁴⁶⁾

불분권(不分卷) 1책인 이 『은봉야사별록』은 찬자(撰者)가 인조 5년(1627) 그의 나이 55세 때 자편(自編)한 것이다. 처음 간행된 연도는 현종 4년(1663)으로서 전라도 흥양현(興陽縣) 향교에서 개간(開刊)되었다. 현

45) 물론 십만양병설의 眞僞와 是非 문제로 설왕설래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사실 여부는 논의로 치더라도, 역대로 그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가 적지 않았다. 율곡 이이를 學祖로 하는 기호학과 내에서도 송시열 같은 사람은 “일찍이 율곡 선생께서 십만양병을 주장하였는데, 만일 오늘날의 의복과 식량으로 양병한다면, 비록 나라의 온힘을 기울인다 해도 공급하지 못할 터인데, 선생께서는 그것에 대해 반드시 생각한 바 있었으리라.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은 밤낮으로 생각해 그 방법을 얻지 못하고 한갓 朱子の ‘전쟁하지 않는 날이 없다고 한 탄식만이 있을 뿐이다’”(『송자대전』 권93, 25b~26a 「與金仲和」)고 하여, 완곡하게나마 그 비현실성을 지적한 바 있다. 또 金萬重 역시 『西浦漫筆』(卷下)에서 “李文成公講養兵十萬 柳豊原以爲不可 (……) 唐之全盛 鎮兵四十餘萬, 而民力殫矣, 有天寶之亂 宋亦以禁兵自病 以蕞爾國, 養兵十萬, 而災不及民者, 未之有也 壬辰之不亡, 獨賴國無刻核之政, 民心不絕於李氏耳”라고 비합리적임을 논한 바 있다.

星湖 李瀾은 『성호사설』 권13, 人事門 〈預養兵〉 조에서 “군인 1명이 하루에 쌀 2되를 먹는다고 할 때 하루에 2만 말을 소비하게 되니, 1개월에 4만섬(15달이 1섬)에 이른다. 이렇게 될 때 군량미만으로도 민생이 피폐에 빠져 난리가 일어나기도 전에 망하고 말 것이다”라고 하였다.

46) 안방준은 『야사별록』의 사료적 가치에 대해서 은연중 상당한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부산기사」 後記에서는 “대저 임진왜란 때 水陸에서 벌어진 사건의 자취를, 조 정에서는 한결같이 여러 장수들의 狀啓에 따랐다. 그러므로 기록한 바는 여러 가지이 나 하나도 믿을 만한 것이 없다” 운운하여, 관찰사료가 갖는 한계성을 지적함과 아울러 『야사별록』의 가치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과 동국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그리고 일본의 가영본(嘉永本) 등 몇 가지 판본이 전하고 있다. 국내본은 편차가 대략 같으나 일본의 가영본은 이채를 띠고 있어 소개할 필요를 느낀다. 가영본은 가영 2년(1849) 11월 도변 윤(渡邊○)에 의해 유호이재(有乎爾齋)에서 간행되었다. 방간(坊間)에 나돌던 사본(寫本)을 저본(底本)으로 한 때문인지 결락(缺落)과 오자가 꽤 있는 편이며, 『전서』에 실린 것과 대조할 때 없는 내용이 잘못 끼여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큰 흠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 책이 일본에서 간행되었다는 자체가 특기할 만한 일이다. 더욱이 조선 사람들의 충용(忠勇)어린 활약상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자기네의 정신 교육에 귀감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에서 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보면, 우리를 깨우치는 바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1996년에 출간된 『국역 은봉야사별록』의 저본이 된 성균관대학교 소장 가영본에는 일제시기 식민사학(植民史學)의 대표적 인물인 금서 룡(今西龍: 1875~1932)의 장서인(藏書印)이 찍혀 있어, 그가 광복 이전에 간직했음을 짐작케 한다. 이점에 있어서도 우리에게서 일단은 엇갈리는 감회가 없을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앵관실극(櫻關室克)이 발문에서 “이 책을 읽으면 임진년의 화란(禍亂)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한 바와 같이, 임진왜란을 당시 조선의 국내 사정상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던, 필연적인 전쟁으로 규정하려는 의도를 내비치면서 사실을 왜곡하고자 하는 것은, 이 책이 일본에서 읽혀지고 정식 간행까지 이루어졌던 또다른 속뜻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찬자 안방준은 왜란이 계속되는 동안, 우리 조선의 관군과 의병들이 왜적을 맞아 용전분투(勇戰奮鬪)했던 사건의 자취를, 자신이 보고들은 바에 따라 서술하여 후세에 전하고자 했다. 전편(全篇)을 통해 자주 의식과 문화적

우월감이 관류(貫流)하고 있다.⁴⁷⁾ 조헌·이순신·김시민(金時敏)을 '구국(救國)의 영웅'으로 부각시키려는 듯한 일면도 엿볼 수 있어, 후세 역사가들로부터 영웅사관(英雄史觀)에 입각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도 있음직하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찬자의 본지와는 거리가 멀다.

『야사별록』에 실린 3편의 기사는 일시에 찬술된 것이 아니고, 왜란 중에 듣고 본 바가 있을 때마다 써 두었던 기사 중에서 여러 번의 수정과 첨보(添補)를 거쳐 사실과 어긋남이 없다고 생각한 것을 뽑아 책으로 엮은 것이다. 3편의 기사 중에서 「노랑기사」는 다른 두 편에 비해 소략한 감이 적지 않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대중 전달을 상상하지도 못했던 당시의 상황에서, 육전(陸戰)도 아닌 수전(水戰)에 관한 것인 만큼 보고들은 것이 적었을 듯하다. 소략하던지 자세하던지 간에 보고들은 대로 바르게 서술한 것 자체가, 오히려 서사(敘事)에 대한 찬자의 엄정한 태도를 엿보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경향은 찬자가 『야사별록』에서 「부산기사(釜山記事)」를 제외시킨 것으로도 여실히 증명된다. 그의 문집 권6~7을 보면 『야사별록』에 실린 3편의 기사 이외에 「부산기사」 한 편이 다른 세 편과 함께 나란히 실려 있는데,⁴⁸⁾ 이는 수군(水軍)으로 해전(海戰)에 직접 참가하였던 오모(吳某)가 이순신·정운(鄭運) 등의 활약상에 대하여 일기처럼 서술한 것을 토대로 그 가운데 번만(煩蔓)한 것을 빼고 꺾락(闕略)된 것을 보충하여 '부산기사'라고 이름한 것이다. 이 기사는 「노랑기사」에서 소략하게 서술된 수군의 활약상을 비교적 소상하게 알려주는 것으로서, 찬자 자신이 직접 삭제(刪除)와 첨보(添補)를 가한 것인 만큼, 『야사별록』에 함께 실렸어도 무방함직하다. 그러나, 찬자는 자신이 직접 보거나 들은 바를 기록한 것이

47) 『야사별록』에서는 왜군들을 '賊' 또는 '倭賊'이라고 했으며 '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싸움의 상대로 여기지 않고 단지 도적떼로 본 것이다. 투철한 문화우월감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다.

48) 『은봉전서』, 권7 所收

아니라 하여 『야사별록』에 신지 않았다. 이는 역사적 사실의 서술이 엄정함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찬자는 약관의 나이에 임진왜란을 만나 의병으로 직접 전투에 참가하였으므로, 전투 상황을 직접 목도하거나 들은 바가 적지 않았다. 게다가 왜적에게 포로가 되었다가 선조 28년(1595)에 풀려난 임우화(林遇華)란 사람을 우연히 만남으로써 왜적의 정황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또 이항복(李恒福)의 『오성일기(鰲城日記)』 등을 참고함으로써, 당시 조정의 돌아가는 형편을 비교적 정확하고 자세히 알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야사별록』은 비록 『징비록』과 같이 당시 조정의 당로자(當路者) 처지에서 찬술된 것은 아니지만, 그가 야(野)에 있으면서도 왜란 중의 조정의 형편, 왜적의 정황, 수군·육군 및 의병의 분전 상황 등을 나름대로 저임새 있고 정확을 기해 서술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요컨대, 절의를 국맥(國脈)을 유지하는 원기로 보아 그것의 부식(扶植)에 힘썼던 안방준의 노력은 여러 가지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절의지인에 대한 표장(表章)이다. 이에 대해 숙재(肅齋) 조병덕(趙秉德 : 1800~1870)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옛날 주부자(朱夫子)는 송나라가 남쪽으로 천도한 뒤에 태어나 개연히 세도(世道)를 걱정하여, 절의를 추명(推明)하는 일을 하나의 큰 일로 여겨 무릇 절의가 있는 사람이면 한 사람이라도 표장(表章)하여 글로 쓰지 않음이 없었다. 이 모두가 국가 명맥(命脈)이 달린 것이다. 대저 도학이 쇠퇴하면 절의가 없어지고, 절의가 없어지면 나라도 따라서 망한다. 이것은 옛 사람의 법언(法言)이다. 주자의 도덕이 아니면 누가 원기(元氣)를 부식(扶植)하는 일에 이처럼 정성을 다할 수 있겠는가? 선생(안방준)께서는 이 문제에 있어 대개 영향을 받은 바 있으리라.⁴⁹⁾

49) 『은봉전서』, 「은봉전서 서문」(한국문집총간 제80권, 324쪽 하단~325쪽 상단) 참조.

절의지인을 표장하는 사업을 주자의 유업과 연결시킨 것이 주목된다.

안방준의 이러한 과업은 우암 송시열에게 유업으로 계승되었다. 송시열의 평생 사업 가운데 중요한 것의 하나가 바로 절의를 숭상하는 기풍을 부식하여 세도(世道)를 진작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는 “대저 절의가 밝으면 국가가 그로 인해 부식되고, 절의가 어두우면 세도가 따라 죽어 없어진다”고 하여, 절의를 숭상하는 가치관의 확립을 국가의 존립과 직결시켰다. 그리고

주자는 송나라가 남천(南遷)한 세대에 태어나서 조금이라도 절의가 있는 사람이면 표창하지 않음이 없었다 호위하는 군사(衛士) 당성인(唐姓人)과 오대산(五臺山)의 중 진보(眞寶)가 오랑캐를 따르지 않고 죽었던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 기록에 남김으로써 그 사적이 매몰될 것을 두려워하였으니, 성현이 절의를 귀하게 여겼던 것이 이와 같았다 50)

고 하여, 주자가 표장(表彰)한 예에 따라, 멀게는 역대 절의로 이름을 떨쳤던 인물들과, 가깝게는 왜란과 호란 당시 절의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던 충신·열사·의인(義人)·열녀·명장(名將) 등에 대하여 그들의 사적을 찾아 표창하고 정신을 선양하는 데 힘썼다. 비록 신분이 미천하더라도 빠트리지 않았다. 51)

송시열이 이처럼 절의의 부식에 힘썼던 것은, 물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인심을 순정(醇正)케 하려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세도(世道)의 진작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렇지만 음사(淫辭)가 횡행했던 당시의 상황에도 적

50) 『송자대전』 권19, 17b 「進文元公遺稿 仍辨師友之誣 又乞許孫疇錫歸田讀書疏」 참조

51) 정몽주·성삼문·박팽년·조광조 등 의리학과 학자들을 비롯하여, 왜란 당시의 조현·이순신·권율·宋象賢·申砬·金應河, 호란 당시의 金尙憲·林慶業과 斥和三學士 등 많은 節義之士들의 傳·行狀·碑文 등을 지었고, 砲手 李士龍과 같은 신분이 미천한 인물들까지도 전기를 지어 표창하였다

지 않은 원인이 있었다.⁵²⁾ 즉, 호란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당시만 하더라도 효종의 북벌대의(北伐大義)를 어리석고 무모한 짓이라 비웃는가 하면,⁵³⁾ 호란 당시 강화도에서 순절한 권순장(權順長)·김익겸(金益謙) 등에 대해 '꼭 죽었어야 할 의리가 없다'고 비방하기도 하며, 또 허적(許積) 같은 이는 홍익한(洪翼漢) 등 척화 삼학사에 대해 "이름이 걸린 곳인지라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고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린 과격한 논의'(望風過激之論)에 힘썼다"⁵⁴⁾고 하는 등 부정한 언사가 들끓었다. 따라서 이러한 음사(淫辭)를 막고 전도된 가치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절의에 대한 표장은 급선무였던 것이다.

송시열은 아버지 수옹(睡翁) 송갑조(宋甲祚 : 1574~1628)의 지기(知己)인 안방준을 부집존장(父執尊長)으로 받들었다.⁵⁵⁾ 평생토록 경앙(景仰)하였노라고 고백한 바 있으며, 또 그의 문하에 종학(從學)하여 춘추대의와 절의사상에 대하여 적지 않은 감화를 받은 바 있다.⁵⁶⁾ 절의지인에 대

52) 郭信煥, 「宋尤庵의 철학사상」, 『국제대학논문집』 제7집, 1979, 358쪽.

53) 윤중 계열의 良齋 崔奎瑞(1650~1735)는 조선이 이미 淸國을 섬겨 왔는데, 尊周大義를 구실로 명나라를 위해 그들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것은, 改嫁한 여인이 전 남편을 위해 복수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였다. 『송자대전』 부록 권19, 4a~4b 「記述雜錄」〈鄭滌錄〉

54) 『顯宗改修實錄』, 9년 7월 27일 甲子條 “許積曰, 其時名流, 於斥和之論, 猶恐不及, 而三臣則名之所在, 不能自抑, 務爲望風過激之論矣”
“송자대전” 권132, 5b 「偶記」 “賊臣許積, 乃於榻前進曰, 三學士是爲名而死, 非眞節義也. (……) 今乃祖述其語, 乃以不死於虜者, 爲十分道理, 而以死者爲無義, 其悖理傷化極矣”

55) 송시열은 40세 때(1646) 안방준에게 자기 집안의 先代事蹟기록을 청하였고, 이에 안방준이 「忠孝傳家說贈宋持平英甫序」(『은봉전서』, 권9)를 지어준 바 있다. 송시열은 뒷날 「은진송씨 家傳」에서 “先府君의 碣銘은 淸陰 文正公(김상헌)께서 찬하였다. 갈명을 청할 때 先友諸公께서 각기 저술한 것이 있는데, 牛山 安丈께서 칭찬하고 추어올린 것이 가장 무거웠다. 후세 자손들은 상고하여 알아야 될 것이다”고 하였다(『송자대전』, 권215).

56) 『송자대전』 권27, 17a~24b에 실린 「上安隱峯書」 6통을 보면, 안방준에 대해 尊丈으로서의 극진한 예의와 景仰의 念을 포함과 아울러 평생토록 節義之人에 대한 表

한 표장에는 송시열의 영향이 지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5. 맺음말

안방준의 문인 서봉령(徐鳳翎)은 스승의 평생 학문을 다음과 같이 읊었다.

마음은 정암(조광조)의 마음이요
 말은 반드시 중봉(조헌)의 말이었네
 숨기를 좋아함은 파옹(坡翁 성혼)의 영향이니
 도를 닦느라 임원(林園)에서 늙었네.
 지은 글들은 훈고(訓詁)가 아니었으며
 오직 충·효·우에 관계된 것들이었으니
 주문(朱門) 말학들의 폐단을
 물리치고 나니 참으로 확연(廓然)하도다 57)

안방준의 학문 연원과 실천유학의 특성을 잘 요약하고 있어 결론에 대신할 만하다. 송시열은 「우산선생 신도비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하늘의 도를 세워서 음과 양이라 했고 땅의 도를 세워서 유(柔)와 강(剛)이라 했으며, 사람의 도를 세워서 인(仁)과 의(義)라 했다(「說卦傳」) 아아! 오직 선생께서 이에 가까울진저. 의(義)의 실천방법은 충(忠)만한 것이 없고 인은 효(孝)만한 것이 없다. [학문의] 대강이 이미 수립되고 만목(萬目)이 이에 행해지니, 미랄손 군자이시어! 학행(學行)을 펼치시되 집성(集成)하시었도다 58

章. 특히 중봉 조헌의 表章에 힘써온 데 대해 感泣한다고 고백하고 있다 또한 春秋 大義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벌였음도 알 수 있다

57) 『은봉전서』 부록 권2, 29b <연보 선생 82세조> “心爲靜庵心, 言必重峯言, 好遜自坡翁, 隨道老林園, 著書非訓詁, 惟忠孝友篇 朱門末學弊, 闢之信廓然”

송시열의 평 또한 적절한 바가 있다. 안방준의 경우, 일찍부터 학문의 대강(大綱)이 정해졌던 것 같다. 그 대강령이란 다름 아닌, 도학과 절의가 결코 둘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강이 정해지자, 그에 연유한 여러 가지 실천 요목(要目)들이 실행에 옮겨지고 하나로 집성되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평소 천리돈확(踐履敦確)을 강조하며 제자들에게 실천유학을 가르쳤던 스승 우계 성혼의 영향이 지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에 윤선거(尹宣擧)는 「우산선생 묘지명」에서, 성혼과 안방준을 정명도(程明道)와 구산(龜山) 양시(楊時)의 사제(師弟) 관계에 비하고 ‘오도남(吾道南)’의 고사(故事)를 오늘에 다시 보겠노라고 하였던 것이다.⁵⁹⁾

안방준은 도학과 절의가 하나임을 보여준 선유(先儒)로서 정몽주와 조헌을 꼽고 이들을 몹시 경모(景慕)하였다. 정몽주와 조헌이 모두 사직(社稷)을 위해 목숨을 바친 것이 사실이지만, 그들의 순국은 단순히 나라를 위해 죽은 것만이 아니라, 유교의 진리를 수호하고 실천하다가 죽은 것이므로, 그저 충신·열사라고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안방준은 이러한 입장을 몸소 실천에 옮겼으니, 왜란과 호란이 중첩되는 대난세에 살면서, 임하(林下)에서 도학을 강명(講明)하는 산림(山林)이면서도 국가와 백성이 위난에 부딪혔을 때 분연히 거의(擧義)하여 선비의 기개를 떨치고 유학의 가르침을 선양(宣揚)하였던 것이다.

안방준은 평생토록 과업(科業)을 떨쳐버리고 사환(仕宦)을 멀리했던 산림유일(山林遺逸)이었다. 인조반정 이후 국가에서 유현(儒賢)을 숭용(崇用)한다는 구실 아래 ‘산림’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야무유일(野無遺逸)’을

58) 『은봉전서』 부록 권3, 23b 「신도비명」 “立天之道，曰陰與陽，立地之道，曰柔與剛，立人之道，曰仁與義。於惟先生，庶幾於是 義莫如忠，仁莫如孝，大綱既立，萬日是舉。允矣君子，展也集成”

59) 『魯西遺稿』 권18, 27b 「牛山先生墓誌銘」 “受伊洛之學，倡東南之道，昔聞龜山，今有牛山”

표방한 뒤, 후대로 내려오면서 현실을 외면하고 헛된 이름만 숭상하게 하는 등 많은 폐단을 초래하였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안방준의 경우는 도리어 조선 후기 산림의 폐단을 해소시킬 수 있는, '도학· 절의는 둘이 아니다'고 하는 학행의 대강령이 있었다. 산림 학자들이 이 강령 내지 경구(警句)를 잘 실천하였더라면, 현실과 유리된 오활지사(迂闊之士)의 오명을 입지는 않았을 것이다.

돌이켜 볼 때, 조선 말기의 난국으로부터 망국(亡國)을 거쳐 일제시기에 이르면서, 우리의 지성인들에게 비상한 결단이 요구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 때 지성인들 사이에 두 가지 입장이 공존하였으니, 그 하나는 나라가 망하면 도(道) 역시 망한다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나라는 망할 수 있지만 도는 망할 수 없다'(國可亡, 而道不可亡)는 것이었다. 전자의 입장에 선 지성인들은 나라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섰으나, 후자의 입장을 취했던 학자· 지식인들은 나라보다 도를 중시하면서 '은거구도(隱居求道)', '독선기신(獨善其身)'을 명분으로 민족의 문제를 외면하거나 등한시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관해 자세히 논의할 여유는 없으나, 적어도 안방준의 입장, 즉 도학과 절의를 둘이 아닌 하나로 본다면, 우리 민족이 이민족의 점제(箝制) 아래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연히 암혈장수지사(巖穴藏修之士)로 자처하고 공자의 이른바 '부재기위(不在其位)', 불모기정(不謀其政)과 주자(朱子)의 이른바 '신불출(身不出)', 언불출(言不出)'의 법문(法門)을 출처대의(出處大義)로 삼아, 현실문제를 외면하지는 않았을 줄로 믿는다. 오늘의 시점에서 안방준의 부르짖음이 더욱 절실하게 들리는 것도 바로 과거 지성인들의 행위를 감계(鑑戒) 삼아 이에 대한 성찰(省察)이 보다 요구되기 때문일 것이다.

도학은 현실문제를 외면하는 학문이 결코 아니다. 강한 실천성을 요구하는 학문이다. 주자(朱子) 당시의 이른바 '도학지인(道學之人)'이 우리가 현

재 알고 있는 것처럼 '고루한 형식주의자'이거나 현실에 어두운 '오활한 인사'가 아니라, 현실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정확한 판단력을 가졌으며, 어느 면에서는 과격할 정도로 현실 비판적인 인사를 가리키는 말이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⁶⁰⁾

60) 戶川芳郎(외), 『儒敎史』, 조성을·이동철(역), 이론편 실천, 1990, 272쪽.

【참고문헌】

■ 자료

- 『乘谷全書』, 『牛溪集』, 『重峯集』, 『宋子大全』(한국문집총간본)
『宋子大全』 제7권, 보경문화사 영인본, 1985.
『隱峯全書』, 한국문집총간 제80~81권, 민족문화추진회, 1992.
『隱峯堊史別錄』, 李相益·崔英成(역), 아세아문화사, 1996.
『國譯 隱峯全書』, 安東教(역), 보성문화원, 2002

■ 저서 및 논문

- 崔英成, 『韓國儒學思想史』 제3권, 아세아문화사, 1996.
李海濬, 「우산 안방준의 생애와 사상」, 『錦湖文化』 1988년 7월호, 금호문화재단.
高英津, 「17세기 전반 호남사림의 학문과 사상-안방준·高傳川·鄭弘溟을 중심으로」, 『한국 史學史 연구』 趙東杰 정년기념, 나남출판, 1997.
黃義東, 「은봉 안방준의 학문연원과 학풍」, 『한국사상과 문화』 제21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3.

Abstract

The Loyal Spirit of An Bangjun and the Significance of His Spirituality

Choi, Young-Sung

As a key figure in the latter part of the Jo-seon Confucianism, An Bangjun (Eun-Bong, the pseudonym, 1573-1654) devoted his lifetime to the study with the idea that Confucian ethics should not be discussed separately from loyalty. Born in Boseong, Jeolla-do, he inherited from the traditions of such scholars as Jo Gwangjo, Seong Hon, and E E, and is construed as part of the orthodox school—after Kim Inhu and Gi Daeseung—of Confucianism in Jeolla-do. Believing in Jung Mongju and Jo Hun, who found the unity of Confucian ethics and loyalty, he inherited from their loyal spirit and put it into practice. Even as a scholar out of office, he promoted the teachings of confucianism and showed the spirit of a learned man by organizing loyal troops when the nation and its people confronted a crisis. Thus, one may be able to grasp the liveliness of his theory that asserts, "Confucian ethics should not be distinguished from loyalty." The paper aims to review his contribution to the history of Korean Confucianism as well as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his loyal spirit.

Key Word

Confucian ethics, Loyalty, Practical Confucianism (or Confucianism in practice), The studies for character building, Real Confucianist